

# ‘-이다’ 선행범주에 대한 고찰

— ‘-的’ 派生語를 中心으로 —

이 상 혁\*

## 차 례

1. 序 論
2. 本 論
  - 2.1 ‘-的’ 派生語의 形態論的 分析
  - 2.2 ‘-的’ 派生語의 統辭論的 分析
3. 結 論

## 1. 序 論

국어에서 命題文<sup>1)</sup> 중의 하나는 ‘NP<sub>1</sub>이 NP<sub>2</sub>이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당연히 NP<sub>1</sub>은 명사이며, NP<sub>2</sub>도 표면적으로 명사의 범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은 국어문장 유형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NP<sub>2</sub>의 경우 NP<sub>1</sub>과는 달리 범주가 좀 더 다양하다. 즉 ‘-이다’의 先行語가<sup>2)</sup> NP<sub>1</sub>에서는 나올 수 없는 범주가 등장하는 것이다.

\* 고려대 민속문화연구소

1) 이 命題文이라는 용어는 후술하겠지만 命題 論理學의 용어인데 언어학적 인 용어로 이 글에서 援用된다.

2) 先行語라는 용어는 ‘先行語基 + -的’을 묶어서 지칭한 용어이다.

## 2 우리어문연구

여기서 나올 수 없는 범주라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명사로 처리하고 있는 ‘-的’派生語類이다.

이 글에서는 ‘-이다’의 先行語가 당연히 명사의 범주를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연 일관되게 명사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표면의 구조에서 타당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의 문장에서 ‘-이다’ 先行語의 구조에 관한 논의는 통사론적인 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다’에 선행하는 ‘先行語基 + -的’의 구조를 논하는데 있어 단순히 品詞性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다’ 先行語의 형태·통사론적인 고찰을 하는데 ‘-的’이라는 機制를 쓸 수 밖에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논의의 一貫性이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는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겠다.

첫째, ‘-이다’ 앞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명사류 중에서 ‘-的’ 과생어는 有標의 性格을<sup>3)</sup>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설명의 기제로 삼을 때 그것은 無標의 범주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漢字語 接尾辭의 派生이 표면적 분포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재검토이다. 다시 말해서 ‘-的’이라는 과생접미사가 어떤 자리에서는 名詞化 接尾辭를 만들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冠形詞化 接尾辭를 만들고 혹은 副詞化 接尾辭를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的’派生語類가 가지는 품사, 그 자체의 체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的’派生語類의 구조를 일관되게 보려는 시도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3) 보통 ‘-이다’의 先行語는 단순한 명사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사와는 달리 ‘先行語基(대부분 명사) + -的’을 有標의인 것으로 보았다. 즉 이러한 派生語는 뒤에 수식하는 명사가 있으면 冠形詞의 範疇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각도에서 구조를 형태·통사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두번째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통사적인 차원에서 ‘-이다’ 先行語는 문장 내에서 어떠한 文章成分으로 기능하며 그것은 그 문장의 주어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어 命題文의 한 유형이 어떤 統辭構造를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크게 세 가지의 前提가 앞으로 논의를 하는데 ‘-的’을 기제로 삼은 理由가 되며 問題提起의 출발이 된다.

## 2. 本 論

### 2.1 ‘-的’派生語의 形態論的 分析

#### 2.2.1 冠形詞와 ‘-的’派生語의 範疇

국어의 品詞는 상위분류에 하위분류로 소속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작게는 6품사이고,<sup>4)</sup>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크게 9품사로<sup>5)</sup>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관형사는 9품사이건 6품사이건 간에 그 품사체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형사가 품사에 있어서 獨立性を 의심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

金敏洙(1955)에서는 관형사의 定義를 관형사가 가지는 두 가지 성질로 언급했는데 그 하나는 반드시 體言을 수식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글월(문장) 중에서 반드시 副體語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60여개 열거하였다. 그리고 金敏洙(1983)에서는 부사와 함께 副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그것은 어형변화가 없다는 점, 수식작용을

4) 국어의 6품사는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국어의 품사를 9품사로 나누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부사’로 분류된다.

#### 4 우리어문연구

한다는 점, 구문상 수식어로 쓰인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沈在箕(1982)에서 이러한 관형사의 품사상의 독립성을 의심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 근거를 여기서는 두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하나, 둘, 셋’과 같은 수명사와 ‘이, 그, 저’와 같은 지시대명사가 통사상의 기능 차이만으로 다른 품사의 범주로 자리를 옮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語源을 소급할 수 없는 ‘어느, 무슨’ 같은 어휘의 수는 극히 제한된 소수임으로 이런 것들을 위하여 품사를 따로 설정하는 일은 방법론상으로 번거로움을 덧붙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어느 명사에서 나왔으나 늘 관형 구조에만 쓰이게 되어 화석화된 특수한 어휘로 다루어야 한 다는 입장을 폈다.

그런데 관형사의 품사성이 의심될 때 관형사로 기능하는 ‘-的’派生語類의 존립근거는 위태하게 된다. 그러나, 沈在箕 (1982)에서는 ‘-的’派生語가 어떤 범주에 새로 편입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수식관계 사이에 零形態素를 첨가하여 ‘-的’派生語가 뒤의 명사와 冠形構造를 이룬다는 설명만을 덧붙여 놓았다.

북한에서는 관형사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럽종률(1980)에서는 관형사의 개념을 ‘대상의 특징을 규정하는 품사’로 정의하고 이 품사들에는 어휘적 의미에 있어서 대상의 각종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어휘의미적으로 분량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신숙(1987)에서는 ‘부사와 함께 수식적어적품사를 이루는 단어부류’로 관형사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자말 관형사도<sup>6)</sup> 언급

6) “...오늘 우리 말 문화어의 관형사는 명사의 격형태를 퇴화시키고 문장에서 규정어의 기능만 수행하거나 단어조성적기능을 수행하는 과도적 단어부류인 일부 어근적명사들로 보충되고 있다. 《일대, 일체, 최고, 최선, 최종, 순수》등을 들 수 있다.

• 공산주의는 인류의 최고 이상이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종 목적이다.”(고신숙 1987: 170-171)라고 언급함으로써 ‘-적’파생어류의 관형사 설정은 옳보이지 않는다. 즉 ‘-적’ 파생어는 관형사를 구성하는 어근적명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자말 관형사에 ‘-的’派生語는 포함되지 못하고 북한에서는 ‘-的’派生語가 어느 위치나 분포를 막론하고 명사의 범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조선문화어문법 (1973)의 標題語에서 ‘-的’派生語가 모두 명사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的’派生語와 후행명사의 관계를 언급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的’派生語를 후행명사와 결합하여 복합명사의 한 성분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的’派生語와 후행명사 사이의 띄여쓰기가 없다(과학적사상, 혁명적기풍 등).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간접적인 근거는 고신숙 (1987)에서 드러난다.

“한편 어근적단어 《국제》, 《원시》, 《고고》등은 《국제적》, 《국제정세》, 《원시적》, 《원시적인》, 《원시시대》, 《원시사회》, 《고고학》과 같은 단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단어조성의 말뿌리나 합친말의 한 구성부분으로 쓰인다.

이러한 유형의 어근적단어들이 명사로서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단어조성적형태부나 합친말, 공고한 단어결합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경우가 더 생산적이다. 이 경우에 이 단어들의 문법적 기능은 퇴화되지만 어휘적의미는 변함없이 보존되기때문에 단어로서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어가는 반면에 단어조성적기능은 적극화되고있다.” (p.25)

이러한 사실도 본고에서는 주목되는 바 ‘-的’派生語도 語根的名詞(단어)와 같이 명사성을 상실하는 범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위의 인용에서는 어근적명사의 단어조성적기능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的’이라는 접사를 뒷가지에 붙이는 경우를 보여주었으나, 이 글에서는 이 ‘-的’派生語도 역시 어근적명사와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先行語基 + -的’에 대한 품사의 일반적 견해를 보

## 6 우리어문연구

면 이 한 접미사가 세 가지의 품사를 만드는 형태소로 인식되어져 왔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 1) a. 저 학생은 사교적이다.
- b.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 중요하다.
- c. 가급적 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문법에서는 1)a는 명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1)b는 관형사로 처리했다. 그리고 1)c는 부사로 그 품사를 설정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위의 품사설정은 타당하다. 1)a에서 는 ‘-이다’ 앞의 先行語는 명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1)b에서는 뒤의 명사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1)c의 경우 동사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부사의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과연 表面構造에서 ‘-이다’ 앞에 선행하는 범주가 모두 명사라고 할 경우 ‘사교적’과 같은 ‘-的’ 派生語는 명사의 역할을 모든 자리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1)a의 문장에서 ‘-이다’의 先行語에서 ‘-的’ 派生語는 분명히 다른 자리에서 명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先行語가 명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가정은 체언이 담당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함과 연관되어 있다. 즉 ‘사교적’이라는 先行語는 다양한 曲用을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뒤에 조사를 취함으로써 동사에 대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격조사와 결합, 문장에서 다양한 성분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명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명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무리이지만 명사성을 상실한다는 차원을 고려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위의 1)a의 ‘-的’派生語는 어떠한 범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다’에 선행하는 ‘-的’派生語를 관형사로 분류한다면 타당한가? 관형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다’ 앞에 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다양한 물음 속에서 우리는 ‘-이다’에 선행하는 ‘-的’派生語의 품사범주를 관형사로 처리하는데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다’에 선행하는 것을 관형사로 볼 경우 다른 관형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도 분명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형사의 범주로 ‘-이다’의 先行語중의 하나인 ‘-的’派生語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국어의 품사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을 뿐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2) a. \*그 신발은 새이다.
- b. \*그 옷은 헌이다.
- c. \*그 사람은 다른이다.
- d. \*그 양념은 갓은이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새, 헌, 다른, 갓은’은 모두 관형사이다 그러나 ‘-이다’의 先行語 자리에 올 경우 위의 문장들은 모두 非文이 된다. 따라서 모든 관형사는 ‘-이다’ 앞에 올 수 없는 범주임이 밝혀진 셈이다. 그렇기에 ‘-이다’에 선행하는 ‘-的’派生語는 명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1)a에서 ‘사교적’과 같은 ‘-이다’에 선행하는 범주는 표면 구조적으로는 명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흥미를 끄는 것은 1)의 a예문과 2)의 모든 예문의 ‘-이다’ 先行語- 사교적, 새, 헌, 다른, 갓은 - 다음에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를 삽입하면 모두 정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 주어의 명사에 의거하여 술어의 명사가 복원(recovery)된 것을 볼 수 있다.

- 3) a. 그 학생은 사교적 학생이다.
- b. 그 신발은 새 신발이다.
- c. 그 옷은 헌 옷이다.
- d.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 e. 그 양념은 갖은 양념이다.

그런데 3)의 예문에서 우리는 3)a와 그 나머지를 구분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교적, 새, 헌, 다른, 갖은’의 범주 중 우리는 ‘-的’派生語인 ‘사교적’은 분명히 명사라고 언급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형사라고 보았다. 그런데 3)의 예문을 보면 모두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3)a의 ‘사교적’이 분명히 특이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서 비교를 하자.

- 4) a. 그 학생은 사교적이다.
- b. 그 학생은 사교적 학생이다.
- 5) a. \*그 신발은 새이다.
- b. 그 신발은 새 신발이다.

4)의 예문과 5)의 예문을 비교해 볼 때 구문상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태적 구성에 있어서 ‘사교적 학생’과 ‘새 신발’은 정확히 같은 구조로 보기에는 힘들다. 다시 말하면 ‘사교적’과 ‘새’의 범주상의 차이점을 구분해 낼 수 있다.

金倉燮(1984)에서는 ‘-的’派生語가 뒤의 명사를 수식할 때 ‘-的’派生語는 어휘적으로는 명사이지만 그 기능과 의미는 형용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金倉燮(1984)에서 말하는 형용사적이라는 말은 형용사의 고유기능 중의 하나인 용언으로서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부적절하다.

한편 김수호(1990)에서는 沈在箕(1982)의 관형사 독립성 부정론을 받아 들이며 ‘-的’派生語의 관형사 설정은 언어연구의 일반성에 비추



어 보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的’派生語의 문법범주에서 관형사는 제외시킨다고 보았다. 沈在箕(1982)에서는 관형사의 독립성을 부정한건 사실이지만 김수호(1990)에서는 본 것처럼 ‘-적 + 명사’를 複合名詞로 본 것은 아니다.<sup>7)</sup> 그런데, 결론적으로 김수호(1990)에서는 ‘-적 + 명사’의 구조를 複合名詞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사교적’과 ‘새’는 범주상 차이점이 있다고 전제한 바가 있으므로 관형사의 독립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새’와 같은 순수 관형사가 있는가 하면 ‘사교적’과 같은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는 범주를 차별하고자 한다. 즉 ‘-的’ 파생어는 역사적으로 초기에는 助詞들이 자연스럽게 붙는 명사의 범주이었으나, 언어자체의 기능상의 변천 결과 명사적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범주로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는 ‘-的’派生語의 명사적 지위를 받는 분포위치가 ‘-이다’나 ‘-으로’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的’派生語는 현대국어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관형사로, ‘-이다’에 선행할 때는 명사로 범주가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的’이 원래 품사는 명사라고 볼 수 있으나, 역사적 변천 결과 점차 명사성의 상실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에 선행하는 ‘-的’派生語가 명사로 기능하지만 이 ‘-的’派生語 다음에 명사를 추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4)의 a, b를 비교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아래의 예문을 보면서 일반적인 관형사 및 ‘-的’派生語類와는 다른 관형사를 볼 수 있다.

6) a. 이 제품은 최신이다.

b. 공부에 관한한 그 학생이 최고이다.

7) 김수호(1990)에서는 沈在箕(1982)의 내용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沈在箕(1982)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적 방식, 형식적 고려, 인습적 폐단”과 같은 것은 複合名詞라 하여 冠形構造를 무시할 수도 있으나 그 基底에는 零形態素( $\emptyset$ )가 있는 冠形構造라 볼 수 있다.”(p.334)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복합명사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문맥은 아니다.

c. 이 목표가 최종이다.

이 예문에서 드러나는 관형사는 한자말 관형사로서 어근적 명사에서 온 것으로 명사가 가지는 격형태는 퇴화되고 관형어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립적으로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처럼 쓰였다.

이 중 6)a, b는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문장이기는 하나 c의 경우 문법성이 의심스럽다.<sup>8)</sup> 그 만큼 이 예문들은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가고 자체 범주의 성격이 관형적임을 시사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그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7) a. 이 제품은 최신 제품이다.

b. 공부에 관한한 그 학생이 최고 학생이다.

c. 이 목표가 최종 목표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7)a와 같은 경우 ‘최신’이 뒤에 나오는 명사 ‘제품’을 수식하고 있다. 7)b의 경우는 ‘최고’가 뒤에 따르는 명사 ‘학생’을 꾸며주고 있다.<sup>9)</sup> 7)c도 역시 선행어 ‘최종’이 뒤에 나오는 명사 ‘목표’를 수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자말관형사 가운데 이러한 관형상의 범주에 들

8) 6)c의 ‘최종’이라는 어형은 金敏洙(1955)에서도 한자어 관형사로 규정하고 있다.

9) 다음과 같은 문장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可能性을 고려해 보자.

♯ 국어 성적에서는 그 학생이 최고야.

위의 문장에서 ‘최고’라는 의미를 ‘최고치’라는 의미로 파악했을 때 6)b와 7)b관계를 이 문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즉, ‘최고’의 의미는 ‘최고 성적의 학생’이라는 意味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나타난다.

♯ 국어성적에서는 그 학생이 최고 성적의 학생이야.

따라서 ‘-이다’에 선행하는 範疇를 고려할 때 그 구조는 冠形構造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단 ‘국어성적에서는’이라는 前提가 문장내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다’ 先行語의 冠形構造가 階層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국어에서 명사의 범주가 관형사로 변하는 예를 확인하면서 국어의 관형구조는 그것이 형태론적으로 논의될 경우 1) 冠形詞 + 名詞의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2) 名詞 + 名詞의 構造 - 複合名詞 - 를 형성하되 선행 명사가 수식기능을 가진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명사와 관형사와의 사이에 다양한 범주가 존재함을 예를 통해 제시하고, ‘-的’派生語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 8) a. 인간, 민주, 책상…
- b. 국제문제, 여류작가, 간이식당, 편의시설, 야단, 발광…
- c. 최신, 최고, 최종, 인간적, 민주적…
- d. 새, 흰, 온갖, 한, 갓은, 제반…

이 예에서 보면 8)a는 분명한 명사이고 8)b는 어근적 명사이다. 즉 8)b의 경우 단독으로는 문법적 관계를 맺기에는 결함이 많은 명사이다. 그러나, 역시 명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8)c의 경우, 앞의 세 가지 예는 분명히 8)b의 예와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명사성이 거의 상실된 범주로 생각된다. 그리고 ‘-的’派生語도 현대국에서 명사성의 상실로 인해 그 쓰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8)d의 예들은 순수 관형사로 자리잡고 있는 범주이다.

이상에서 볼 때 국어에서 ‘-的’派生語는 현재 ‘-이다’에 선행할 때 명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자체가 가지는 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8)c의 앞의 세 가지 예와 같이 명사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위의 예들은 아래의 범주들에 각각 들어 갈 수 있겠다.

명사 → 어근적 명사(명사성) → 어근적 명사(관형사성) → 관형사			
인간, 민주, 책상, . . .	국제, 여류, 간이, 편의, 발광, 야단, . . .	최신, 최고, 최종, <u>인간적</u> , <u>민주적</u> , . .	새, 현, 온갖, 갖은, 한, 제반, . . .

이 그림은 국어 冠形構造와 관련하여 관형구조의 先行語 중 명사와 관형사 사이의 범주를 나뉘대로 설정한 것이다. 즉, 완전한 명사에서 語根의 名詞로 이어 冠形詞로 이어지는 위의 그림은 형태론적 의미에서 뒤의 명사를 꾸며주는 先行 要素의 분포이다.

화살표는 ‘-的’派生語가 명사와 관형사라는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포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시이다. 다시 말하면 ‘-的’派生語가 名詞性을 상실한다는 근거를 어근적 명사의 冠形詞性이라는 의미를 붙여 밝혀 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的’派生語가 가지는 형태론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위의 그림에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근적 명사인데 그 중 ‘여류, 간이, 편의’와 같은 예는 불구적이지만 명사의 기능을 보다 ‘최신, 최종, 인간적, 민주적’의 예보다 더 잘 수행한다고 본 것이고 ‘-的’派生語를 포함하는 후자의 경우는 명사성보다 관형사로서의 위치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的’派生語와 같은 예들이 명사성을 관형구조에서 상실한다고 가정해 보았다. 단 ‘-的’派生語를 語根의 名詞(冠形詞性)에 포함시킬 때 어근적 명사라는 용

어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면은 있으나 좀 더 국어 명사의 형태론적 분석을 통해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 2.1.2 ‘-的’派生語類의 形態論의 類型

현대국어에서 ‘-的’에 선행하는 先行語基에 따라서 ‘-的’派生語類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과거에는 ‘-的’에 先行語基가 한자어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 국어에서 쓰이는 ‘-的’派生語의 先行語基는 한자어 뿐만 아니라 순수 고유어와 외래어도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的’이라는 형태소와의 결합이 파생적인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보이는 경우도<sup>10)</sup> 있다.

그러나, ‘-的’이라는 한자어 접미사의 결합형이 辭典에 등록되어 있는 한 새롭게 ‘-的’과 결합하는 모든 단어는 사전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的’派生語類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고 ‘-的’형태소의 의미를 공고히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的’ 파생어류의 형태론적 유형을 살펴보고 ‘-的’派生語를 형성하기 위한 규칙이나 조건을 점검해 보자.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的’派生語의 先行語基는 그 범주가 다양하다. 아래와 같은 예를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 9) a. 가공적, 가족적, 내용적, 과학적, 진보적, 경제적…
- b. 인적, 지적, 동적, 정적…
- c. 소극적, 가급적, 노골적, 국제적, 본격적, 편의적…
- d. 교과서적,
- e. 달걀꾸러미적, 장난감적, 뜨내기적, 어거지적, 선비적…<sup>11)</sup>

10) 李益燮(1968 : 478)에서는 “「的」의 지나치게 높은 生産性은 「的」과의 결합이 派生的(derivational)인 것인지를 疑問視하게 될 정도라는 것도(「的」의 結合形이 모두 辭典에 등록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참조) 이 接尾辭의 특이성의 하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1) 이 예들은 김수호(1990 : 8-9)에서 열거한 [+Native] 어휘로 아직까지 국어의 ‘-的’派生語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김수호(1990)에서

## f. 코페르니쿠스적, 이데올로기적, 파쇼적...

이상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다. 9)a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구체명사가 아닌 범주에 ‘-的’이 결합한 것이다. ‘-的’ 派生語類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9)b의 경우는 先行語基가 명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수호(1990)에서는 이러한 先行語基를 의존 형태소로 불렀다. 물론 9)a의 경우는 先行語基를 자립 형태소라고 칭하였는데 여기서는 ‘人-’, ‘知-’, ‘動-’, ‘靜-’을 한자어 어근으로 부를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한자어 하나가 어간 내지는 단어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국어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범주는 반드시 어근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형태소도 하나의 어근이 될 수는 있다.

9)c의 경우는 先行語基가 명사이기는 하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 모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범주는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주를 앞에서 어근적 명사라고 불렀다. 이러한 어근적 명사는 그 쓰임이 다양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사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합어를 형성할 때도 다른 일반적인 명사와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9)d의 경우에서 우리는 특이한 예를 보게 된다. 즉 보통 ‘-的’의 先行語가는[-concrete]인데 이 경우는 구체명사이다.<sup>12)</sup> 다른 구체명사는 거의 대부분 ‘-的’이 붙으면 비문법적인 형태를 보인다.(\*부모적,

---

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先行語가 순수 고유어인 것과 ‘-的’과의 결합을 보여 주었다.

장난감적 성질, 뜨내기적 성격, 우리적 전통, 바둑적 인생, 달걀꾸러미적 발상, 억제지적인 느낌, 선비적 풍모

- 12) 先行語基에 具體名詞가 포함되는 것은 선행어기 制約條件을 설정하는데 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 선행 어기의 자질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므로 제외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행어기에 따른 분류를 할 때 구체명사가 그 선행어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행어기를 [-concrete]로 설정한 기존연구에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책상적…)

9)e의 예는 모두 순수국어 어휘가 先行語基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예이다. 한자어 先行語基보다는 그 예가 현저하게 적으며, 위에서 보 다시피 자연스럽게 국어에서 쓰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들이 다. 그러나, 몇몇 예들은 수궁이 가는 바, 고유어와 ‘-的’과의 결합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f의 경우는 외래어가 先行語基로 작용한 예이다. 先行語基의 의미 적 특성이 강조되면서 ‘-的’과 결합한 형태는 고유명사가 先行語基가 되는 예이다. 그리고 단순한 외래어와의 결합은 한자어가 先行語基로 쓰이는 예와는 다를 바 없으나, 외래어와 ‘-的’ 접미사의 결합이 이체 로울 뿐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위의 예들은 문장 속에서 자연스러운 구성을 이 루고 있다. 즉 뒤에 오는 명사와 어떠한 제약없이 결합을 하고 있다.

- 10) a. 그 대통령은 진보적 인물이다.  
 b.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c. 이 사건은 국제적 문제이다.  
 d. 일본의 축구는 교과서적 축구이다.  
 e. 그 사람은 뜨내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f. 히틀러의 정치는 파쇼적 정치이다.

이러한 다양한 예는 정철주(1985:326)에서 아래와 같이 규칙화했다.

$$\left[ \begin{array}{c} (非)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N] \\ +sino \\ -concrete \end{array} \right] + 的$$

- 단, ① [N]의 끝음절은 ‘的’이 아니어야 한다.  
 ② ‘-스럽-’이 접미되면 ‘-的’이 접미되지 않는다.  
 ③ [N]의 反對語가 없어야 한다.

이 규칙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的’의 先行語基를 너무 한정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的’의 先行語基의 범주를 명사라고 한정한다면 9)b, c가 배제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어에서 9)b, c는 자연스럽게 쓰이는 예이다. 물론 어근적 명사인 경우는 이 역시 명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 하나, 9)b의 경우 한자어 어근은 국어에서 명사라고 보기에는 힘든 형태소 범주이다. 따라서 명사로 先行語基를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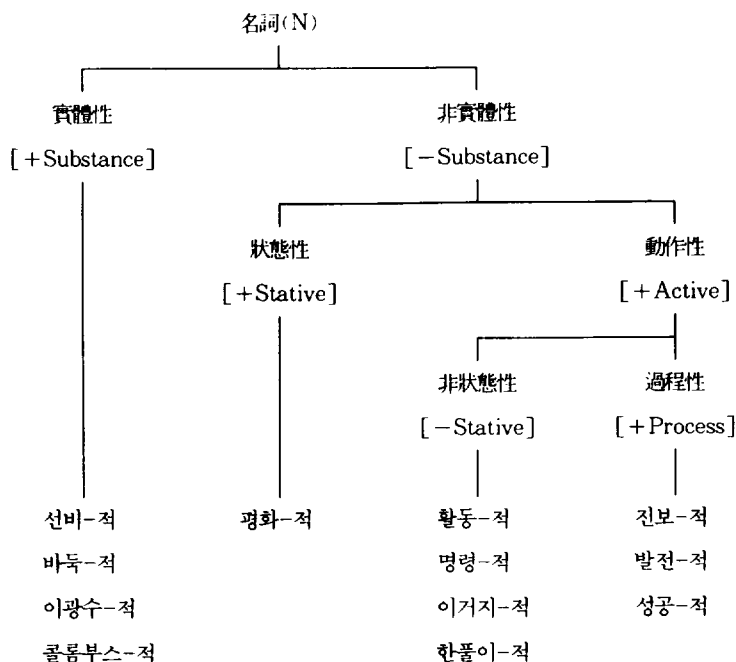
그리고 한편으로 先行語基가 한자어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9)e, f의 예를 보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자어가 先行語基로 등장하는 것이 보편적이기는 하나, 반례가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oncrete]라는 자질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장남감적’이니 ‘교과서적’이니 하는 구체명사들이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철주(1985)의 규칙화는 규칙의 간결성에 도 불구하고 반례가 많이 드러나는 규칙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된 규칙과 제약은 김수호(1990)에서 대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先行語基를 형태적을 제약하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김수호(1990)에서는 先行語基를 분석한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하나는 형태론적인 면에서 보면, ‘-的’의 先行語基는 명사류로서 ‘형태소’단위에서부터 ‘이은말 구조’까지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는 결론이다. 다른 하나는 의미론적인 면에서 ‘-的’의 先行語基는 고유어, 한자어, 서구 외래어 모두 가능하지만, 한자어가 가장 많은 파생어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명사류의 의미자질을 아래와 같이 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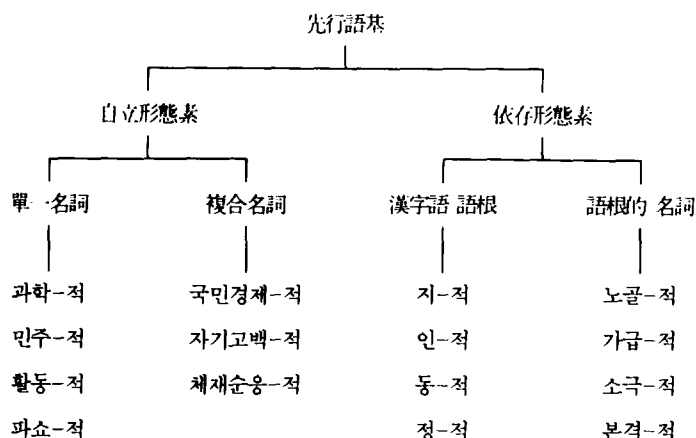


# 1 〈名詞類의 意味資質〉



이 그림은 철저하게 어휘의미론적으로 펼쳐진 ‘-의’ 先行 語基의 자질 표이다. 나름대로 타당성과 어휘적 示差性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9)의 다양한 예들은 형태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그림이나, 자질의 설정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글에서는 先行語基의 형태구조적 그림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겠다.

## #2 〈先行語基의 形態의 下位分類〉



결국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형태들이 모두 명사류의 성격을 갖는 것은 분명하나 각각 그 형태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근적 명사’에 관한 것이다. 위의 그림을 보면 ‘어근적 명사’에 ‘-的’이 붙는 것 역시 ‘어근적 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즉 ‘노골, 가급, 소극, 본격, 국제, 편외와 같은 명사는 어근적 명사인데 여기에 ‘-的’이 붙은 것도 어근적 명사로 본 것이다. 이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해답은 前章에서 언급했듯이 ‘-的’派生語類의 명사성 상실에 기인한다. 사실 어근적 명사는 ‘-的’이라는 형태소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的’派生語 중에서 ‘어근적 명사 + 적’의 구성을 보이는 것도 어근적 명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그 구성이 문장에서 제한된 분포를 보인다는 측면 때문이고 그 기능이 관형구조에서 수식의 기능이라는데 있다.

또한 어근적 명사를 명사성을 가진 것과 관형사성을 가진 것으로 구분한 前章에 준하면 ‘최종’과 같은 관형사성 어근적 명사는 관형구조에서

관형사적 기능으로 쓰이는데 ‘최종’에 ‘적’이 붙는다 해도 우리는 별다른 의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1) a. 이 목표는 최종 목표이다.
- b. 이 목표는 최종적 목표이다.

이 예문을 보면 양자가 어떠한 의미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유는 ‘최종’과 ‘최종적’이 모두 어근적 명사의 범주에 넣으면 관형사성을 발휘하는 범주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관형사성 어근적 명사에 ‘-的’이라는 형태소의 접미는 隨意的 接辭法에<sup>13)</sup>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的’派生語類는 어근적 명사와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되고 단지 여기서 ‘-的’이라는 형태소는 관형구조에서 수식 기능을 확실히 해주는 표지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명사성 어근적 명사에 ‘-的’이 붙게 될 경우에는 명사성 어근적 명사가 당연히 관형사성 어근적 명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 귀결로 가늠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면서 생각해 보자.

- 12) a. 이 학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b. 이 학교는 편의적 시설이 부족하다.

이 예문을 보면서 필자는 의미의 차이를 느낄 수 없으나, 의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도 무방하다. 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편의’라는 명사성 어근적 명사가 ‘-的’이 붙으면서 관형사성 어근적 명사로 전화되었다는 점이다. 11)의 예에서는 ‘최종’과 ‘최종적’이 모두 관형사성 어근적 명사라고 파악되어서 형태론적 범주의 변화가 없

13) 隨意的 接辭法이라고 命名한 것은 위의 예에서도 확인되지만 ‘-的’이라는 접미사가 붙어도 관형구조의 先行 修飾語이고 붙지 않아도 선행 수식어이므로 ‘-的’이라는 형태소가 文法關係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었으나, 여기서는 형태론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어근적 명사의 구분은 ‘-的’派生語의 유형을 구분하는데도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的’派生語의 先行語基에 대한 규칙과 제약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정철주(1985)의 규칙은 뒤에서도 언급했지만 너무 제한적이다. 즉 ‘-的’의 先行語基의 폭을 추상적 한자어 명사에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的’派生語의 분포를 제대로 형식화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예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규칙을 공식화하는 문제를 남겨 놓았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겠다.

$$\left[ \begin{array}{c} \text{(非)}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text{名詞相當語}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text{的} \end{array} \right]$$

단, ① 명사상당어는 단일명사, 복합명사, 한자어 어근, 어근적 명사를 모두 포괄한다.

② 명사상당어는 ‘-的’이라는 형태소를 포함할 수 없다.

③ 명사상당어는 한자어 뿐만이 아니라 고유어, 외래어도 포괄한다.

④ 先行語基에 ‘-스럽’이 接尾되면 그 선행어기에 ‘-的’이 접미되지 않는다.<sup>14)</sup>

⑤ 명사상당어의 反對語가 없어야 한다.<sup>15)</sup>

- 14) 이 말은 ‘-스럽’과 ‘-적’이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반례가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아래와 같이 확인 한다.

평화적 \* 평화스럽-

신비적 \* 신비스럽-

- 15) 위의 규칙에서는 ‘非-’라는 부정 접두사를 같이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반대어가 있으면 ‘非-’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간접적(↔직접적).....\*비간접적

객관적(↔주관적).....\*비객관적

긍정적(↔부정적).....\*비긍정적

상대적(↔절대적).....\*비상대적

이 예에서 보듯이 부정 접두사 ‘非-’와 ‘-的’이 함께 쓰일때 반대어가 있으면 잘못된 어형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的’派生語의 先行語基의 범주와 규칙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的’派生語의 先行語基는 그 범주가 명사류이되 한자어어근과 어근적 명사라는 범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고 그런 의미에서 先行語基는 단순히 명사로만 취급될 수 없는 형태적 다양성을 드러냈다. 여기에 규칙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的’派生 語類가 어떻게 파생되는가에 대한 설명적 타당성도 획득되었다고 본다. 특히 先行語基를 의미자질로서 다룬 앞선 연구와는 달리 형태론적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은 ‘-的’派生語의 내부구조를 좀더 새롭게 살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先行語基의 유형적 분석을 통한 ‘-的’派生 語類의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겠다. 여기에 나오는 예는 ‘-的’派生語의 일부에 불과하다. 즉 頻度數가 높은 語彙를 중심으로 辭典에 登載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열거하였다.<sup>16)</sup> 단 이 일부는 정철주(1985)에서 조사한 것인데 필자는 先行語基의 형태론적 범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 1. 先行語基가 一般名詞인 경우

架空의 家庭的 假定的 家族的 間接的 強制的 強壓的 概念的  
 開放的 個別的 蓋然的 個人的 客觀的 拒否的 巨人的 建設的  
 見本的 結論的 結果的 決定的 經濟的 經驗的 季節的 系統的  
 鼓舞的 古典的 古風的 公共的 空想的 公式的 過渡的 科學的  
 概念的 狂亂的 教育的 規則的 肯定的 機械的 記錄的 奇蹟的  
 內部的 內容的 內在的 論理的 多情的 大衆的 道德的 獨斷的  
 獨占的 動物的 慢性的 矛盾的 文學的 物質的 民主的 民衆的

16) 辭典에 登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어휘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이유의 한 측면이 과도한 生産力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先行語基 + -的’을 派生語로 보고자 한다.

反動的 反復的 發生的 傍觀的 法 的 法律的 辨別的 變態的  
 病 的 本能的 本論的 本質的 否定的 悲觀的 事實的 社會的  
 相關的 相對的 常識的 象徵的 生理的 生產的 庶民的 選言的  
 先驗的 數 的 循環的 視覺的 時間的 詩 的 紳士的 實用的  
 實質的 心理的 女性的 阿附的 壓倒的 野心的 精神的 正言的  
 政治的 組織的 綜合的 主觀的 支配的 地域的 直觀的 職業的  
 直接的 集團的 超越的 抽象的 通俗的 特徵的 平面的 必需的  
 必然的 學問的 合理的 合法的 行動的 良心的 量 的 歷史的  
 英雄的 人間의 人格的 人工的 人道的 印象的 一般的 臨時的  
 立地的 立體的 自動的 自然的 自律的 自主的 自治的 潛在的  
 專門的 全體的 傳統的 典刑的 絕對的 行政的 革命的 現代的  
 形式的 化學的 確定的 幻想的 懷疑的 犧牲的

2. 先行語基가 語根의 名詞인 경우

可及的 舉國的 巨大的 巨視的 巨族的 高次的 國際的 內省的  
 露骨的 多角的 微視的 本格的 先天的 人爲的

3. 先行語基가 漢字語 語根인 경우

端的 動的 美的 性的 心的 靜的 知的 質的 潛的  
 外的 內的 人的

2.1.3 ‘-的’ 形態素의 形態論의 意味

‘-的’을 金圭哲(1980)은 程度化 接尾辭(degree suffix)라고 바라 보았다. 그 근거는 한 예로 ‘인간’이라는 명사에 ‘-的’이 붙으면 non-degree word인 ‘인간’이 ‘인간적’이 되어 [+degree]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degree]라는 것은 어휘의미를 위한 차별하기 위한 자질이다. ‘인간적’이라는 어휘가 그러한 정도화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

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형태적 혹은 통사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접미사’라는 개념에 ‘정도화’라는 어휘의미적 용어를 덧붙인다면 어색한 용어 설정이다.

전통적으로 접미사라고 하면 派生 接尾辭와 屈折 接尾辭로 대별되어 왔다. 실질적으로 ‘-的’이라는 형태소는 지금까지 보편적인 논의 속에서 파생접미사로 처리되어 오던 것이다. 물론 ‘-的’의 생산성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파생접미사의 성격에 의심을 던져보는 경향도 없지 않았으나, 많은 ‘-的’ 派生語 목록이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파생 접미사의 성격을 단순히 부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金圭哲(1980)에서는 ‘-的’ 先行語基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的’과 이 결합형으로 쓰일 때가 서로 각 범주간에 어휘의미적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고 ‘-的’을 그 차별성의 요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도화’라는 개념을 도출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각 층위-形態論, 統辭論, 意味論-간의 구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的’ 형태소의 의미가 우선 형태소의 개념에 근거한 원칙에 의해서 먼저 점검되어야 한다.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면 구조주의적 개념으로 쉽게 이해 될 수 있다. 즉 문장의 구조에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단위(A morpheme is the smallest un-it of meaning)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정도화’ 같은 어휘자질의 의미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 형태소가 문장에서 文法的 意味(grammatical meaning)를 가진다는 것을 지시한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한 형태소에 그 문법적 의미를 부가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태론을 인접영역과 완벽하게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다만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最小單位가 보다 그 층

위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的’이라는 형태소의 문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的’이라는 것이 접미사’라는 문법범주이다. 그러나 그 앞에 붙는 수식이 ‘정도화’라는 범주로 설정되는 것은 ‘-的’의 문법적 측면을 너무 간과한 탓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정도화’라는 개념 대신에 ‘冠形化’라는 개념을 새로이 제시할 수 있겠다. 물론 이 개념은 先行語基의 의미자질, 그리고 그 先行語基에 ‘-的’이라는 형태소가 붙은 형태의 어휘의미를 배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접미사가 형태론적으로 또 통사론적으로 어떠한 문법적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겠는가를 고려해 볼 때 ‘관형화’ 개념의 설정은 ‘-的’이라는 접미사를 보다 다른 접미사와 차별하는데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도화’라는 용어를 ‘-的’과 관련하여 쓰고자 한다면 차라리 程度化 意味素(degreefy sememe) 정도가 더 적절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제 짝을 찾아간 경우라고 생각한다. 형태소는 의미소에 대조 또는 상관되는 개념으로 형태소 없는 의미소는 없고 의미소 없는 형태소도 없다. 우리의 의식적 反省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분석된 요소로서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양자는 결합한 상태로 나타난다(김봉주 1984 : 13). 이러한 이유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었겠으나 형태소와 의미소가 함께 연관은 되어 있지만 어떤 층위에서 보는가에 따른 차이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접미사’라는 형태론적 개념은 ‘관형화’라는 형태·통사론적인 개념과 어울릴 때 자기 正體性(identity)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金光海(1983)에서는 ‘-的’를 세 가지 부류로<sup>17)</sup> 나누고 제1부류의 ‘-的’은 관형화소, 제2,3부류의 ‘-的’은 명사화소로 나누었다. 제

17) 第Ⅰ類: N<sub>1</sub>的(인) + N<sub>2</sub> → N<sub>2</sub>가 N<sub>1</sub>의이다.

第Ⅱ類: N<sub>1</sub>的(인) + N<sub>2</sub> → N<sub>2</sub>가 N<sub>1</sub>의이다.

第Ⅲ類: N的 + VP (金光海 1983 : 62)



1부류의 경우 ‘-的’들은 그 기능이 거의 통사적인 면에 국한되는 듯한 것으로서, 오히려 중국 白話文에 나타나는 ‘-的’의 기능과 가깝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예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 13) 정치적(인) 수완
- 학문적(인) 수준
- 경제적(인) 난국(金光海 1983: 62)

그래서 이러한 예들은 ‘N<sub>1</sub>가 N<sub>2</sub>이다’의 구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아래의 예를 또 제시했다.

- 14) \*수완이 정치적이다.
- \*수준이 학문적이다.
- \*난국이 경제적이다.

이러한 非文이 형성되는 것은 여기서의 ‘-的’이 일반적인 ‘-的’과는 상이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의 ‘-的’은 오히려 국어의 冠形化素(-의)나 다를 바 없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1부류는 중국 백화문과 유사하고, 국어의 屬格과 같은 의미의 형태소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의견을 달리 한다. 첫째, 중국 백화문에서는 ‘-的’의 쓰임이 속격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그 반대 이유의 하나이고, 둘째는 14)와 같은 비문은 13)의 구조에 대하여 심층구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무리가 있다는 말은 관형변형이 된 것을 국어 2형식 구문으로 복원시킬 때 그 2형식 문장의 다른 심층구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술할 ‘-的’派生語의 통사론적인 문제에서 더욱 자세히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인’의 탈락을 수의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경제적 난국’과 ‘경제적인 난국’은 그 구조가 분명히 다르다고 필자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이라면 후자의

경우 술어의 관형화된 관형어와 명사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제1부류의 ‘-的’派生語의 관형사 범주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2,3부류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주임을 알 수 있다.

제2부류의 경우는 名詞化素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존 논의의 흐름이다. 단 관형변형이 이루어진 것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 그러한 범주에 대하여 제2부류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는 명사화소라고 부르는 것을 보류할 것이다. 명사화소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X(\text{名詞}) \Rightarrow X'(\text{派生名詞})$ 로 변할 경우, 과연 명사가 또 다른 명사(파생명사)로 된 것이 명사화인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 15) a. 경제 (명사)  $\rightarrow$  경제적 (파생명사) + 이다.  
 b. 교과서적(명사)  $\rightarrow$  교과서적(파생명사)인 축구  
 c. 국제(어근적 명사)  $\rightarrow$  국제적<sup>18)</sup>(관형사) 문제  
 d. 動(한자어 어근)  $\rightarrow$  이 그림은 동적(파생명사)이다.

15)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a,b 모두 명사인데 ‘-的’이 붙은 다음도 명사이다. 명사화소라고 일컬을 수 있으려면 파생이 되기 전에 범주는 명사가 아니어야 한다. 명사가 아닌 경우는 c,d의 경우인데 c의 경우 현대국어이 학교문법에서 관형사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명사화소라 부르기 매우 힘든 지경이다. 또한 ‘-的’派生語類중 d와 같이 한자어 어근에 ‘-적’이 붙는 경우는 제일 빈도수가 작다. 그렇다면 d의 경우도 명사화소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X(\text{名詞}) \Rightarrow Y(\text{冠形詞, 혹은 冠形構造에서 修飾語})$ 의 변화에 입각, ‘-的’을 冠形化 接尾辭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18) 김수호(1990)의 경우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관형사 부정론(沈在箕: 1982)을 옹호하며 ‘-적’은 뒤에 명사와 함께 관형구조를 보이기는 하는 것으로 보나, 품사론적인 입장에서는 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즉 Y값이 관형사가 되거나, 품사는 명사라 할 수 있어도 관형구조의 수식어 역할을 함으로 우리는 관형화 접미사가 이 양자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다’에 선행하는 경우 분명히 품사는 명사이지만 심층에 이 명사가 수식할 수 있는 다른 명사를 상정한다면 ‘-이다’에 선행하는 것 역시 충분히 관형사성을 가질 수 있다. 심층에 숨어 있는 명사의 경우는 통사론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다음 장에서 보다 깊이 다루어 질 것이다.

## 2.2. ‘-的’派生語의 統辭論的 分析

### 2.2.1 ‘-的’派生語 構文의 深層構造와 相照變形

여기서 우리는 이 ‘-的’派生語를 통사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 통사론적 차원에서 ‘-的’派生語를 바라본다는 것은 ‘-的’派生語와 문장 내에 있는 범주간의 相關性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문장의 주어와의 관계를 염두해 두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국어에서 ‘NP<sub>1</sub>이 NP<sub>2</sub>이다’의 述格文을 언급할 때 단순하지만 이 문장의 구조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構造變化(structural change)의 문제, 다시 말하면 變形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변형의 전제, 즉 深層構造 역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的’派生語를 가지는 술격문의 구조에서 이러한 양상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러면 문제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1) a의 ‘NP<sub>1</sub>이 NP<sub>2</sub>이다’라는 문장의 相照變形(mirror transformation)을 생각해 보자. 그 상조 변형의 결과 아래와 같은 非文이 형성된다.

- 16) a. \*사교적은 저 학생이다.

이러한 非文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는 변형 이전의 구조 즉 심층구조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1)a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형 결과 非文이 형성되는 것은 ‘사교적’이라는 범주 자체의 문제도 있거니와 심층구조를 우리가 잘못 파악 한데서 기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的’派生語의 불구적 곡용으로 인한 제약의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는 ‘저 학생이 사교적이다’를 막연히 核文(kernel sentence)으로 본 결과 잘못 본 경우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장은 상조변형이 아주 자연스럽다.

17) a. 금성이 셋별이다. ⇒ 셋별이 금성이다.

이 경우는 심층구조가 위 예에서 보다시피 확연히 인식될 수 있고, 그것이 상조변형을 자연스럽게 만족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주어가 술어가 된 범주와 그 반대의 범주 모두다 동일한 명사의 범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NP<sub>1</sub>이 NP<sub>2</sub>이다’의 구문이지만 상조변형이 되지 못하는 문장을 볼 수 있다. 그 예를 보자.

18) a. 아이들이 야단이다. ⇒ \*야단이 아이들이다.

b. 그 아주머니가 주책이다<sup>19)</sup> ⇒ \*주책이 그 아주머니이다.

c. 응원하는 사람들이 발광이다. ⇒ \*발광이 응원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다’ 형의 문장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우

19) 원래 ‘주책’이라는 의미는 ‘일정한 주건이나 쯤대’인데 반대의 의미까지도 포괄하여 ‘일정한 주건이나 쯤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책이다’를 ‘주책 없다’라고 해도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리는 ‘-이다’를 論理學에서 사용하는 繫詞 (copula)라는<sup>20)</sup> 용어로 언어학에 맞게 사용하여 왔다. 그것은 한 명제 안에서 한 質料(matter)와 다른 질료를 형식적으로 연결해 주는 항목으로 지칭되는데 그 계사의 역할은 「A = B」의 형식을 가지는 範疇命題에서는 동사가 담당한다(국어의 ‘-이다’, 영어의 ‘be’동사)(金光海 1982 : 2).

그렇다면 국어에서 ‘-이다’의 취하는 문장에서는 「A = B」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1)a와 16)a와 같은 문장에서는 「A = B」의 형식을 취할 수 없다(학생 ≠ 사교적). 마찬가지로 18)a, b, c에서도 「A = B」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변형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18)의 예문들의 경우 ‘-이다’ 先行語가 명사인데 왜 불가능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嚴密下位範疇化의 규칙으로 제안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야단, 주책, 발광’ 따위의 명사는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_\_\_\_\_ + -이다]라는 것을 명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보다 명세하기 위해서는 選擇制限 규칙으로 자질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남기심(1968)에서는 ‘NP<sub>1</sub>이 NP<sub>2</sub>이다’와 같은 구문에서 ‘NP<sub>1</sub>이 NP<sub>2</sub>이다’ 구문이 기본문이 아닌 예를 들면서 A ≠ B가 되는 이유

20) 傳統文法에 있어서 주어와 소위 보어와를 연결시키는 동사로서, 대표적인 連繫詞 be와, 그리고 seem, look, sound 등의 연계사적 동사(copulative verb)가 있다. 變形文法에서는 be(英語 이외의 언어에서는 그 상대어)만이 copula라고 불린다. Chomsky(1965 : 107)에서는 다음과 같은 基層規則 VP → Copula Predicate로 표현하듯이 深層構造에 처음부터 나타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러시아어, 아라비아어, 말레이어 등 많은 언어에서는 英語의 be에 상당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주어에 名詞句, 形容詞句,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등이 직접 附加되는 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基層規則이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일부라고 생각되어 연계사가 基層部에 처음부터 있는데, 적당한 위치에서 변형에 의하여 삭제된다는 說과, 連繫詞가 基層部에 없고 변형에 의해 삽입된다는 說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Lakoff 1965, Bach 1967). 또한, Ross(1967 c,d)처럼, ‘be’를 주동사(main verb)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지 copula를 文法 속에서 어떻게 취급하는냐는 일반화의 견지에서 경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언어학사전 1987 : 232)

### 30 우리어문연구

는 이 술격문이 다른 문형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자.

- 19) a. 영호가 늑막염을 앓는다. → 영호가 늑막염이다.  
 b. 순희가 거짓말을 했다. → 순희가 거짓말이었다.  
 c. 그가 피병을 앓는다. → 그가 (또) 피병이다.  
 d. 박군이 핑계를 댄다. → 박군이 핑계다.

이 예문에서 보듯이 술격문은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문에서 온 것을 보여준다. 이 때의 술격문이 기본문이 아님은 이것이 상조변형이 없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아래와 같은 예를 보자.

- 20) a. \*늑막염이 영호다.  
 b. \*거짓말이 순희다.  
 c. \*피병이 그다.  
 d. \*핑계가 박군이다.

20)의 예들에서 보면 이 문장들이 非文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19)의 술격문이 심층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19)의 他動詞文이 심층구조를 형성한 것에 기인한 결과다. 이것은  $A \neq B$ 의 결과를 드러낸 술격문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8)의 예들도 19)와 같은 심층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 21) a. 아이들이 야단을 떤다. → 아이들이 야단이다.  
 b. 그 아주머니가 주책을 떤다. → 그 아주머니가 주책이다.  
 c. 응원하는 사람들이 발광을 한다. → 응원하는 사람들이 발광이다.

이 예문을 보면 19)의 예문을 연상할 정도로 구조가 유사하며 그 도출형태가 똑같다. 이것을 보면 21)의 예들도 他動詞文에서 述格文으로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술격문은 18)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상조변형이 불가능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상조변형이 불가능 한 것임에도 우리는 상조변형으로 파악하고자 하려 했던 것은 모든 술격문은 A = B를 형성할 것이라는 演繹的 推理의 誤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명확히 ‘사교적’이라는 ‘-的’派生語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명사성을 많이 상실하게 된다는 형태론적 결론을 통사론적인 관점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假定을 수립하게 된다. 즉 ‘-的’派生語가 ‘-이다’ 선행어로 위치하고 있을 때 과연 그 범주는 통사론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이다’에 선행하는 ‘-的’派生語의 경우 상조변형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的’派生語가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조변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주가 명사이지만 문장에서 ‘-的’派生語가 기능할 때 冠形詞性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sup>21)</sup> 따라서 이 관형사성이라는 의미가 통사론적인 관점에서도 적용될 때 우리는 ‘-的’派生語가 포함된 모든 문장의 구조를 옳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語根的 名詞(주책, 야단 발광)가 포함된 ‘-이다’ 술격문은 상조변형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어근적 명사는 명사성이 강한 어근적 명사로 ‘-的’派生語와는 형태론적 성격이 다르다. 우리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的’派生語를 논하는 자리에서 어근적 명사를 두 가지로 대별했다. 그 하나는 명사성이 강한 어근적 명사이고 다른 하

21) 冠形詞性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도 相照變形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과 21)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主部の 명사와 述部の 명사의 實體가 같지 않을 경우에도 상조변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경우의 ‘-이다’구문은 변형에 의해서 도출된 문장일 수 밖에 없다.

나는 관형사성이 강한 어근적 명사였다. 이 때 우리는 ‘-的’派生語를 冠形詞性 語根의 名詞의 범주에 소속시켰다.

그렇다면 ‘-이다’에 선행하는 ‘-的’派生語는 형태론적으로 규정된 그 범주(冠形詞性 語根의 名詞)를 유지하면서 통사론적인 차원에서 인접한 범주와 관련하여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는 먼저 ‘-的’派生語가 포함된 ‘-이다’ 구문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22) a. 저 학생은 사교적 [e] 이다.

b. 저 학생은 사교적 학생이다.

22)a는 S-구조에서 빈자리를 설정한 것이고 22) b는 同一名詞句를 보여 주어 표면에서는 탈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층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이다’에 바로 선행하는 범주가 다른 명사가 아니라 ‘-的’派生語일 경우 우리는 이 구조를 基本文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술격문일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즉 기본문으로 상정을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술격문에서  $A \neq B$ 의 관계를 형성한 구조 역시 그것을 기본문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위에서의 가정 및 그것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서 ‘-的’派生語가 들어 있는 문장 역시 ‘-的’派生語가 ‘-이다’에 바로 선행할 경우  $A \neq B$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역시 기본문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22)a의 경우 ‘-이다’에 선행하는 범주가 ‘-的’派生語이므로 우리는 이 문장이 變形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核文 내지는 基本文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핵문은 어떤 형태이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핵문을 22)b로 가정할 수 있겠다. 즉 주어의 명사구와 술어의 명사구가 일치하는 文型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的’派生語는 술어의 명사구를



수식하는 범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핵문에서 ‘-的’派生語는 직관적으로 보통의 관형구조에서 관형사와 똑같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3) a. 사교적 학생은 대부분 미소를 잃지 않는다.  
 b. 그 학생은 사교적 학생이다.

23)a의 ‘사교적 학생’과 b의 ‘사교적 학생’의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같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국어 학교문법에 비추어 보아 관형사이고 후자의 경우는 관형사성 어근적 명사라고 보는 관점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 할 수 있다.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억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법에서 구조를 밝힌다는 것은 같은 범주가 분포에 차이를 보일 경우 타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다’라는 繫詞에 선행하는 관형 구조는 ‘-이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탈락으로 ‘-的’派生語의 관형사성이 숨어버리고 ‘-的’派生語의 명사성만이 표면적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관형사성이 숨어버린다는 것은 同一名詞句 탈락과 관계가 있다. 단 ‘-的’派生語는 완벽한 명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근적 명사로 가정되었기 때문에 표면구조상에서  $A \neq B$ 와 같은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的’과 관련하여 ‘-이다’에 선행하는 구조는 단순히 형태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사실 ‘-的’派生語가 이렇게 분포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 하기 때문에 품사에 따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김수호(1990)에서는 ‘-이다’ 선행어는 당연히 명사로 보고 1) b.에서 ‘교육적’이라는 관형사를 관형사로 보지 않고 複合名詞의 관형구조로 바라 보았다. 그러한 근거를 아래의 예를 들면

서 제시했다.

24) a. 문법적인 뜻

b. 문법적 뜻

24)의 예에서 24)a는 ‘-인’이 隨意的으로 탈락하면 24) b와 같은 데 전자는 명사, 후자는 관형사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 글에서도 ‘-이다’선행어는 명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기에 김수호(1990)에서 지적한 모순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인’의 隨意的 脫落이라는 주장은 24)a에서 b를 도출하는데 너무 임의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4)a의 경우 통사론적 층위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24)b의 경우 형태론적 층위에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서로 다른 것이다. 단 24)b의 경우 ‘문법적 뜻’이 ‘-이다’에 선행하여 문장에서 쓰일 경우-다시 말하면 통사론적 층위에서 보아야 할 경우 이 구조 역시 당연히 우리는 23)b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4)a를 통사적 변형 전으로 돌리면 아래와 같다.

25) a. 뜻이 문법적이다. ⇒ b. 뜻이 문법적 [e] 이다.

c. 뜻이 문법적 뜻이다.

다시 말하면 24)a는 25)c에서 25)a로 同一名詞句 脫落 變形을 거치고 다시 관형변형을 경험한 문장구조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5)에서는 c가 심층구조가 되는 것이고 a는 변형을 거치고 도출된 표면구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a의 경우를 핵문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변형도 일어나지 않은 구조로 보았다.

그렇다면 25)b와 같은 구조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빈자리를

설정하고 있을 뿐더러 이 빈자리는 과연 痕迹(trace)인가? 아니면 PRO인가? 25)a와 같은 S-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지배와 결속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적절한 범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입증만 된다면 ‘同一名詞句 脫落 規則’과 같은 標準理論에 의거한 규칙은 보다 큰 설명력을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支配와 結束의 관점에서 타당한 범주를 설정하지 못하면 표준이론에 의거한 규칙은 인정될 수 밖에 없다.

먼저 그 빈자리가 痕迹이라고 가정을 하자. 흔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名詞句 移動(NP-movement)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사구 이동은 비어있는 성분의 자리로만 이동하는 代置規則(substitution rule)인데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名詞句 移動은 意味役을 받는 자리로부터 출발하여 의미역을 받지 않는 자리로 이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26) 그 논리는 역설적 [<sub>t</sub>]이다.

얼핏 보기에 위의 예문을 명사구 이동을 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sub>t</sub>의 자리가 과연 의미역을 받는 자리인지가 불명확하다. 또한 이동한 자리가 확실히 의미역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수사항을 어기고 있다. 이동한 자리는 의미역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의 주어자리는 의미역도 받고 격도 받는 자리이다. 따라서 흔적을 남기고 이동하려고 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영어에 있어서 受動態의 경우 주어 자리는 의미역을 받지 못하고 격만을 받는 이동된 자리인데 26)의 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명사구 이동과 흔적을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가 PRO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PRO는 統制理論(control)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으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支配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선행사는 意味役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세째는 下位隣接條件(subjacency condition)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27) 그 논리는 역설적 [PRO] 이다.

우리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 빈자리에 PRO의 설정이 타당하지 못함을 밝힐 수 있다. 우선 PRO의 자리가 支配를 받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다’라는 敘述格 助詞가 敘述格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 문장에서 PRO의 선행사는 의미역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PRO라고 하면 공대명사로 우리가 위의 빈자리를 NP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어긋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PRO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보지 않으면 격에 지배를 받지 않으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GB원리에 의거하여 이 주제를 다룬 것이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修正擴大標準理論의 틀 속에서는 ‘-이다’에 선행하는 ‘-的’ 派生語 구문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단문임에도 불구하고 공지시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명 사구 탈락규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1)c의 문장은 ‘가급적’이 부사로 기능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분명히 ‘가급적’은 관형사라는 품사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래의 예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관형사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가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정도화에 ‘-的’이라는 관형화 접미사가 붙어 단순한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다가 부사로 화

석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형태소는 ‘-이다’ 형은 취하지 못하지만 ‘-이면’형을 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이다’ (活用形 포함)를 ‘가급적’이 취하지 못한다는 金倉燮(1984 : 159)의 반례가 나타난다.

28) a. 가급적면 빨리 와라.

부사로 화석화된 ‘비교적’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이 형태는 관형사와 지금 언급한 부사로 같이 쓰인다. 아래 예를 보자.

29) a. 그는 글씨를 비교적 빨리 쓴다.

b. 이 문제는 비교적 차원에서 생각하자.

이 예들을 보면 18)a의 ‘비교적’은 29)b의 관형사에서 온 것으로 전자 역시 ‘비교’라는 단어가 정도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단순한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다가 화석화된 것이다.

## 2.2.2 國語 基本文型에서의 位置

국어의 기본문형에서 ‘NP<sub>1</sub> NP<sub>2</sub>이다’는 어떤 종류의 패턴인가? 金敏洙(1983)에서는 국어의 기본문형을 5형식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金敏洙(1971)에서는 국어의 기본문형을 6형식으로<sup>22)</sup> 나누고 있다. 이 중 주어 + 명사(술격문)이 바로 ‘NP<sub>1</sub>이 NP<sub>2</sub>이다’ 문형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술격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30) a. 그 아가씨는 대학원생이다.

22) 金敏洙(1983 : 138-139)에서는 제1형식이 동사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金敏洙(1973 : 176-177)에서는 제1형식이 동사문, 제2형식이 형용사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 b. 이 작품은 예술적이다.
- c. 저 개가 몹시 발광이다.(金敏洙 1971 : 176)

30)a는 전형적인 命題文이다.<sup>23)</sup> 즉  $[A = B]$ 의<sup>24)</sup> 관계가 정연하다. 따라서 상조변형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대학원생은 그 아가씨다’라는 문장도 현실적인 문장이다. 30)b는 그 심층구조가 역시 명제문이다. 심층구조가 명제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를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 ‘이 작품은 예술적 작품이다.’ 그러나, 상조변형은 표면에서 불가능하다. 이유는 30)b의 문장이 결코 기본문 다시 말하면 核文이 아니기 때문이다. 30)c는 명제문이 아니다. 즉  $[A = B]$ 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상조변형도 불가능하다. 주어와 술어간의 實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문장은 원래 기본문이 아니고 ‘저 개가 몹시 발광을 한다.’라는 문장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달은 쟁반이다.’와 같은 隱喻的 表現은 술격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層位- 그러한 구조에 대한 논의는 의미론의 영역이므로-를 달리 하므로 제외된다. 그렇다면 국어 술격문의 세 가지 유형에서 30)a,b만이 명제문이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문형의 하위분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圖示될 수 있을 것이다.

- 23) “...명제는 지시대상을 갖는 주어와 그에 대해 서술하는 수어로 구성되는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진 또는 위, 즉 진리치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언어학, 특히 생성문법에서는 명제를 위와 가까운 의미로,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내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한 정의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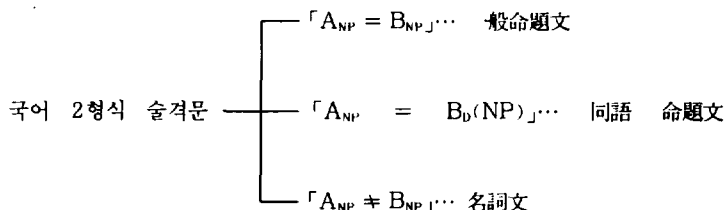
또 이와는 달리 Fillmore(1968a)의 격문법 이론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성분의 하나로서 Proposition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Sentence  $\rightarrow$  Modality + Proposition

과 같은 다시쓰기 규칙으로 도입되어...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Proposition은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언어학사전 1987 : 727).

- 24) 여기서이 등식관계는 어휘의미적인 어휘 자체의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실체(entity)와 술어의 실체 사이에 명제논리적 일치를 의미한다. 단 명제논리적 일치가 은유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



위의 표에서 우리는 一般 命題文과 同語 命題文, 그리고 名詞文으로 하위분류를 했는데 그 하위분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2형식 문장으로 일컬어진 文型들이 대부분 그 구조의 성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분은 필요하다. 구분은 불가피하게 ‘-이다’ 선행어의 차이에 의해서 오는 것이므로 그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형의 하위분류는 단순히 새로운 문형을 만드는 것보다 비싼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一般 命題文은 사실상 두 가지로 대별될 수도 있다. 즉 주어와 술어의 명사구가 實體와 語彙 意味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1) a. 상혁이는 남자이다.  
b. 금성은 셋별이다.

이 경우에 31)a는 실체와 어휘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상혁’이라는 실체와 ‘남자’라는 실체는 包含關係 내지는 具體性和 抽象性的의 관계 이외에는 일치하지만 어휘적 의미에서 兩者는 다르다. 반면에 31)b의 경우 실체와 어휘적 의미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문장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통

사론적 관점에서 동일한 범주가 동일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역시 우리에게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는 것은 ‘-的’派生語가 포함된 ‘-이다’구문이다. 우리는 이 문형에 대하여 同語 命題文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았다. 주어의 명사와 술어의 명사가 심층에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술어의 명사는 주어의 명사와 달리 관형구조의 명사이고 주어의 명사를 동어반복적으로 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조는 冠形詞性 語根的 名詞가 표면에서는 명사의 구실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심층에서는 또 다른 명사에 그 머리어(head)가 옮겨 간 것이다.

끝으로 名詞文이라고 지위를 얻은 구조를 보면 ‘-이다’ 先行語가 어근적 명사인 경우이다. 따라서 주어의 명사와 실체 및 어휘적 의미 어떤 것도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사실이 문형은 형식만 ‘-이다’구문이지 실제로는 ‘-이다’ 구문과 아주 異質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형식의 차원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2형식 술격문으로, 명사문으로 그 지위를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다면 ‘-的’派生語類가 존재하는 문장은 국어 2형식 문장의 구조에 편입되며 심층구조에서 同語 命題文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동어명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A = B」의 관계에서 정확히 外延이 일치하는 문장으로 상정된다. 이 경우에 심층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구조 先行要素는 표면에서 의미적으로 敘述機能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통사적으로 敘述기능을 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다. 예문을 보자.

- 32) a. 그 여자의 노래는 정열적이다.  
       ⇒ 그 여자의 노래는 정열적 [노래]이다.  
       b. \*그 여자의 노래는 정열이다.  
       c. 그 여자의 노래는 가고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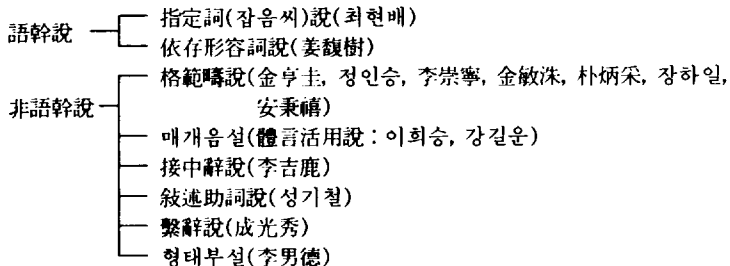
이 예문에서 32)a는 자연스러운 문장임에 반하여 32)b의 문장은 비문이다. 그러나, 32)c의 문장은 또 正文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32)b 문장이 비문인가에 대하여 「A = B」라는 명제문의 屬性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2)a 문장에서는 「그 여자의 노래 = 정열적 노래」로 等值關係를 이루지만 32)b의 문 장에서는 「그 여자의 노래 ≠ 정열」로 對等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外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32)c의 문장은 「그 여자의 노래 = 가고파」로 屬性의 一致關係를 보인다.

여기서 먼저 파악되는 것은 명사와 명사의 대등은 外연관계의 대등이라는 결론이다. 이것은 양쪽이 모두 술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는 당연히 술어가 될 수 없고 술어 위치에 있는 명사도 外연이 있으므로 통사적 술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사적 술어는 外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사 중에서 外연을 갖지 못하는 명사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열’도 또한 32)b 문장에서 外연을 갖지 못하므로 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것이다.

### 2.2.3 統辭的 敘述機能과 意味的 敘述機能

統辭的 敘述機能과 意味的 敘述機能을 수행하는 범주를 구분하고자 할 때 먼저 주목되어야 할 것은 ‘-이다’의 문제이다. 사실 ‘-이다’의 처리문제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증폭 시킨 것으로 현재는 接尾辭說, 敘述格 助詞說, 繫詞說로 정리가 된 상태이다.<sup>25)</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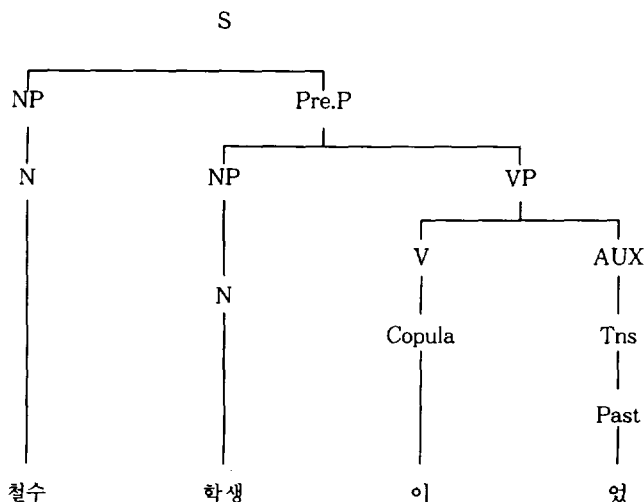
25) 高暢洙(1985: 19)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이다’의 연구사를 표로 정리하고 있다.



‘-이다’를 특별히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다른 범주로 바라보지 않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 글의 논리적 흐름과 맞게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다’구문을 처리하면서 ‘-이다’를 계사로 본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成光洙(1975)와 金光海(1982)다. 成光秀(1975)에서는 불완전명사와 ‘-이다’사이의 고찰을 통해 ‘-이다’는 계사이고 ‘불완전명사 + 이다’는 文生成過程에서 변형 유도된 일종의 복합어이긴 하나, 명사적 특성과 계사로서의 상태 동사적인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pp.88-89)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다’구문을 아래와 같이 그리고 있다.

33) a. 철수가 학생이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다’는 계사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면서 술부는 동사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동사구는 이 계사를 관할하고 있다. 물론 論理學的인 繫詞의 概念은 主部(철수)와 賓部(학생)을 제외하고 또 Modality(助動詞, 時制 등)를 제외한 요소이다. 즉 3분법

이지만 言語學에서 계사는 술부에 속하는 下位概念이다.

金光海(1982)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言語學에서의 繫辭는 많은 語彙項目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된다. 그러나 一般的인 어휘들과는 그 특징이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첫째로 繫辭라는 개념은 理論上 深層에 추상적으로 存在하는 것이며 表面에 나타나는 形態로서의 繫辭는 ‘意味상으로 無意味한(semantically dummy)’, ‘名目上の 動詞(dummy verb)’임에 불과하며, 둘째로 앞의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語彙形態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밝히면서 언어학에서의 계사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생각은 세계의 여러 언어를<sup>26)</sup> 설명하는데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계사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의 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통사적 서술기능과 의미적 서술기능의 핵은 과연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따라서 통사적 서술기능과 의미적 서술기능을 구별하고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34) a. 우뚝 솟은 저 산이 인수봉이다.  
b. 우뚝 솟은 저 산이 인수봉.
- 35) a. 여기는 경기도이다.  
b. 여기는 경기도.
- 36) a. 너희는 외국인, 우리는 한국인이다.  
b. 너희는 외국인, 우리는 한국인.
- 37) a. 그 사람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

26) 영어의 경우 ‘Mary is beautiful’이나 ‘Mary is a child’는 繫辭가 생략된 형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어의 경우도 표면상 無繫辭의 構造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b. 그 사람의 인기는 폭발적(인기).

이 예문들을 보면 통사적 술어의 주된기능을 무엇이 담당하고 의미적 술어의 주된 기능을 무엇이 담당하는지 알 수 있다. 34)–36)까지의 각 b는 金光海(1982)의 예이고 그 나머지는 이 글에서 ‘-이다’선행어가 ‘-的’派生語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

‘-이다’ 문장에서 통사적 서술어의 기능은 당연히 ‘선행어 + 이다’가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통사적 서술기능에서 중요한 핵은 ‘-이다’로 이 범주가 통사적 서술기능의 주요 담당자이다. 위의 각 예에서 ‘-이다’가 생략된 구문은 의미론적으로 각각의 짝과 차이가 없다. 단 전자들이 통사적으로 문장을 풀어내는 주요 요소가 없을 따름이다. 그러나 의미적 서술기능은 바로 서술어의 명사, 논리학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賓部가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34)에서는 ‘인수봉’이, 36)에서는 ‘경기도’가, 36)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각각 서술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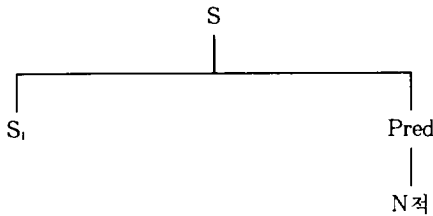
따라서 ‘先行語基 + -적’에서 ‘-的’이 先行語基의 문법요소를 서술어로 바꾼다는 洪淳性(1982 : 724)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통사적인지 의미적인지가 먼저 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b에서 ‘정열적’이 술어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어에서 관형구조의 선행 요소가 문장에서 어떤 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의 술어기능은 바로 의미적 술어기능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的’이라는 접미사의 정도화라는 문제에 너무 의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37)의 경우 통사적 서술기능은 ‘폭발적이다’가 하지만 의미적 서술기능은 ‘폭발적’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필자는 ‘폭발적’ 다음에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적 서술기능이 뒤에 생략된 ‘인기’가 해야 하나 ‘폭발적’도 표면에서 그 명사성이 인정됨으로 그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37)의 경우에서도 ‘-이다’가 통사적 서술기능의 중요한 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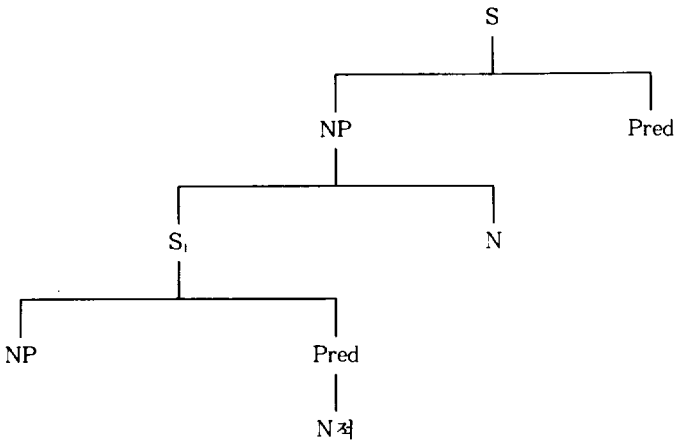
## 2.2.4 ‘-의’派生語가 포함된 構文類型

다음은 ‘先行語基 + -의’이 ‘-이다’(활용형 포함)와 함께 형성하는 문장구조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洪淳性 (1982)에서도 ‘-의’派生語의 통사현상이라 하여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그 첫째는 補文化 構造였다. 그리고 둘째는 關係化 構造였다. 세째는 斷言文 構造를 살펴 보았다. 각각의 예와 그림을 보면 아래와 같다.

38) 문제가 정치적으로 등장했다. → 문제가 등장함이 정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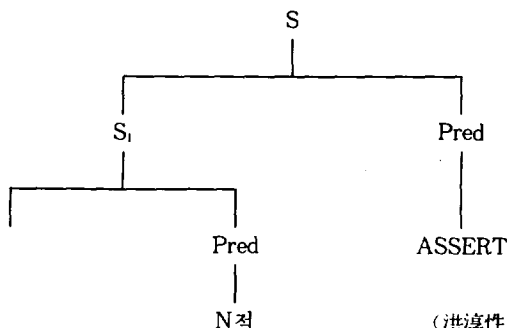


39) 행동이 기계적이다 → 기계적 행동



46 우리어문연구

40) 나는 그의 행위를 영웅적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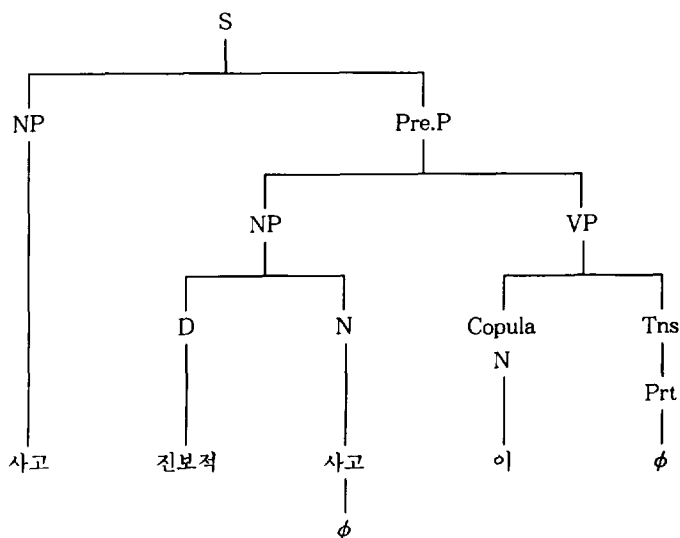
(洪淳性1982 : 746-749)

그런데 위의 예와 그림 중에서는 38)의 경우는 ‘-的’派生語가 들어 있는 문장을 너무 다른 표면형으로 도출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고, 39)의 경우 관형화 구조를 나타낸다면 ‘기계적인 행동’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필자는 ‘기계적 행동’과 같은 것은 형태론적인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 또한 40)의 경우 이 구조의 심층구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的’派生語가 포함된 문장유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보려고 한다. 첫째는 위에서도 나온 命題文으로서의 유형이다. 즉 ‘-이다’가 활용을 하지 않은 유형이다. 둘째 유형은 冠形化 유형이다. 두가지의 변형을 거친 유형이다. 셋째 유형은 內包文에서 補文化 유형이다.

그러면 먼저 첫째 유형을 검토해 보자.

41) a. 사고가 진보적 [사고]이다. → 사고가 진보적이다.



이 이 유형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연을 가지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술어의 기능을 ‘-이다’가 수행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의 변형규칙은 同一名詞 削除 規則으로 파악할 수 있다.

41)a의 문장에서는 명제문 안에서 동일명사구가 존재하므로 NP가 탈락한 것인데 탈락은 분명히 수의적이며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근거는 ‘진보적’이라는 관형구조가 표면에서 명사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심층구조를 41)의 왼쪽과 같이 잡는 것은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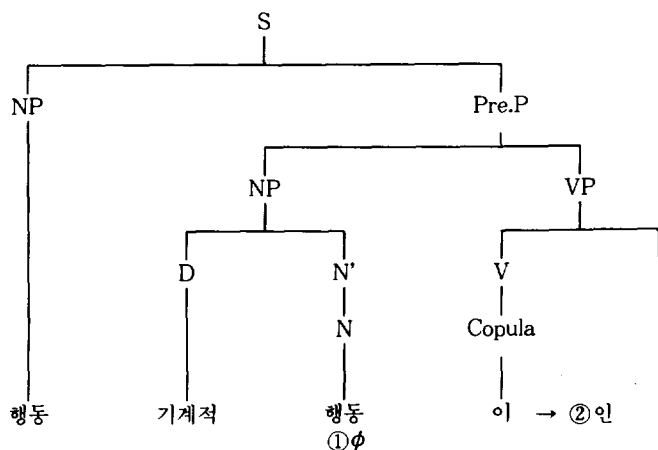
42) 사고가 진보적 [e]이다.

42)b의 문장은 41)a와는 좀 다르게 보는 입장으로 D-구조에서는 주어가 존재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가 주어 자리로 移動規則에 의하여 옮겨 간 것으로 바라본 구조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동의 이유가 ‘국어는 언제나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主語前提條件(任洪彬: 1985)인지 아니면 격을 받기 위해서 이동한 것인지는 아직 모호하다. 그 이유가 같은 말을 바꿔 이야기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본다면 격을 분명히 이동하기 전에 받고 있기 때문에 후자에서 주장되는 이동의 근거는 상실된다. 그러나, 서술격 조사로 보지 않고 단순히 接尾辭 내지는 繫詞, 連結動詞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세한 서술은 4.4.1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 유형은 冠形化 유형이다. 여기서 먼저 전제할 것은 형태론적인 차원과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43) a. 행동이 기계적 [행동]이다. → 기계적인 행동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先行語基 + -적’은 ‘-이다’와 같이 합하여 Pre.P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 있는 圓文字는 규칙의 순서를 의미한다. 즉 먼저 동일명사구 탈락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관형화 변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 관형변형을 먼저 진행시키면 중간에 ‘기계적 행동인 행동’과 같은 非





내포문의 성격은 첫번째 언급한 문장의 유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母文의 경우 ‘-이다’의 名詞形을 모문의 目的語로 바라보는 구조이다. 그래서 내포문의 동일명사구는 탈락을 하고 모문의 목적어로 되기 위하여 補文化 구조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先行語基 + -적’이 일반적인 명사라고 가정하고 문장을 형성해 보면 非文이 분명히 드러난다.

46) a. \*내가 생각이 보수적을 깨달았다.

이러한 통사적인 차원에서도 ‘先行語基 + -적’은 관형구조의 先行語基이며 심층에 명사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가 되려면 당연히 목적격의 지표를 제공하는 조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的’이라는 형태소는 당연히 관형화를 만드는 접미사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겠고 ‘-的’派生語는 관형사성 어근적 명사로 그 명사성을 상실해 가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 3. 結 論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국어의 ‘선행어 + -이다’의 구조를 지니는 문장에서 선행어를 ‘先行語基 + -的’이라는 기제를 사용하여 ‘이다’에 선행하는 ‘-的’派生語類의 형태·통사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的’과 형태론적인 분석에 들어가서, ‘-的’派生語類는 명사성을 역사적으로 점차 상실한 어근적 명사의 冠形詞性 範疇에 소속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보았다. 명사성이 보다 강한 다른 어근적 명사와의 구별은 분포의 制約, 품사상에 있어서 명사성 어근적 명사보다 관형사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차이점을 들어 제시를 하였다.

‘-的’派生語의 유형은 先行語基의 형태론적인 범주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즉 先行語基가 형태론적으로 어떤 범주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自立 形態素인 一般名詞, 語根의 名詞, 漢字語 語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적’파생어 선행어기 제약조건도 名詞相當語라는 큰 범주에 묶어 규칙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的’이라는 형태소가 가지는 문법 형태소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있었는데 ‘程度化 接尾辭’라는 용어와 한자어 접미사라는 일반적인 용어에서 벗어나 관형구조의 수식어를 관형화하는 冠形化 接尾辭의 설정을 가정하였다. 이 가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적’파생어가 부사의 지위를 얻는 측면까지는 고려되지 못하고 형태적 관형구조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한계도 드러났기 때문에 좀 더 천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통사론적인 분석로서 ‘-的’을 가지는 문장의 심층구조는 주부의 명사를 ‘-이다’에 선행하여 갖는다는 가정을 하여 표면적으로 單文임에도 불구하고 同一名詞句 脫落 規則을 제안해 보았으며 국어 술격문에서 상조변형이 가능한 문장과 그렇지 못한 문장을 분류하고, ‘-적’파생어를 가지는 문장도 상조변형을 할 수 없음을 보였다. 그리고, 국어 문형의 차원에서 ‘-적’파생어를 포함하는 ‘-이다’구문을 同語 命題文으로 바라보면서 국어 술격문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그 술격문의 나머지는 一般 命題 文과 名詞文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또한 ‘-적’파생어를 가지는 문장의 意味의 敘述機能과 統辭的 敘述機能을 대별하여 의미적 서술기능은 ‘-이다’에 선행하는 ‘-적’파생어가, 그리고 통사적 서술기능은 ‘-이다’가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적’파생어가 포함된 문장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補文化 類型, 關係化 類型, 斷言文 有形이 그것이다. 이 각각의 유형을 변형규칙과 관련시켜 도출과정을 규칙순에 따라 생각해 보았다.

다음은 이 글의 대강의 결론이다.

1. 국어의 ‘선행어 + -이다’의 구조에서 선행어인 ‘先行語基 + 一的’은 관형구조의 성격으로 표면에서 명사의 기능을 하지만 관형구조의 선행요소로 그 名詞性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
2. 따라서, ‘-적’파생어는 그 범주가 ‘語根的 名詞의 冠形詞性’으로 규정될 수 있다.
3. 그리고, ‘-的’이라는 접미사는 형태론적인 관형구조에서 冠形化 接尾辭로 기능을 한다.
4. ‘-적’파생어의 先行語基는 복합명사와 단일명사를 포함한 一般名詞, 語根的 名詞, 漢字語 語根으로 구성된다.
5. 국어의 ‘선행어 + -이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표면에서 상조변형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先行語基 + -적’의 관형구조의 수식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 ‘비교적’이나 ‘가급적’과 같은 부사는 ‘-的’이라는 관형사화 접미사가 화석화되어 형성된 것이다.
7. 국어 술격문의 하나인 ‘-적’ 파생어가 존재하는 문장은 同語 命題文이다.
8. 국어 동어 명제문에서의 통사적 술어기능은 ‘先行語基 + -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의 역할에서 주로 나온다. 의미적 서술기능은 ‘-이다’를 제외한 범주가 대신한다.
9. ‘-이다’ 構文(활용형 포함)의 통사적 현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동일명사구 탈락 규칙 내지는 이동규칙을 갖는 단순 명제문이 있다.  
 둘째, 관형변형을 거친 통사적 차원의 문장이 있다.  
 셋째, ‘-이다’ 구문을 명사형으로 취하며 동일명사구 탈락규칙과 보문화 규칙의 적용을 받는 문장이 있다.

이상으로 ‘-的’派生語類의 형태·통사론적인 고찰을 해 보았다. ‘NP<sub>1</sub>

이 NP<sub>2</sub>이다’라는 구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많은 부분이 假定과 自意的 分類를 한 곳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可能性과 類推를 하지 못함을 반성 하면서도 ‘-적’과생어의 형태·통사론적인 고찰을 통해서 국어에서 큰 造語力과 많은 분포를 보이는 ‘-적’과생어류와 관련된 이후의 漢字語 接尾辭의 綜合的 研究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姜吉云(1955). “지정사는 설정되어야 하는가” 「한글」 120.
- 고신숙(1987).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高楊洙(1985). “語幹形成接尾辭의 設定에 對하여.” 「고려대 석사논문」.
- 金光海(1982). “繫辭論.” 「李應百 博士 華甲紀念 論叢」.
- 金光海(1983). “意味의 圖式化와 接尾辭 {-的}.” 「덕성어문학」 1.
- 金圭哲(1980). “漢字語 單語形成에 관한 研究.” 「국어연구」 41.
- 김 근(1983). 「새중국어문법」 제명대출판부.
- 金敏洙(1955). 「大學國語」. 역대문법대계.
- 金敏洙(1971). 「國語文法論」 서울: 一潮閣.
- 金敏洙(1983). 「新國語學」 서울: 一潮閣.
- 김봉주(1984).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김수호(1990). “한자어 접미사 ‘-的’ 연구.” 「문학과 언어」 11.
- 김용석(1986). “접미사 ‘-적(的)’의 용법에 대하여.” 「배달말」 11.
- 金在玟(1976). “「N + 的」類 名詞에 대한 形態 統辭論의 考察.” 「淸州大論文集」 12.
- 金倉燮(1984). “形容詞 派生接尾辭들의 機能과 意味.” 「震檀學報」 58.
- 남기심(1969). “문형  $N_1$ 이  $N_2$ 이다의 변형분석적 연구.” 「계명논총」 5집.
- 리근영(1985).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徐在克(1970). “開化期 外來語와 新用語.” 「東西文化」 4(啓明大).
- 成光秀(1975). “「不完全名詞 + {하(다), 이(다)}에 대한 生成論的 分析.” 「語文論集」 17(高麗大).
- 宋 敏(1985). “派生語形成 依存形態素” 一的 “의 始原.” 「于雲 朴炳采 博士 還曆記念論叢」.
- 신인철(1987). 「영어통사론」 서울: 한신문화사.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서울: 集文堂.
- 朴英順(1984). 「韓國語統辭論」 서울: 集文堂.

- 이상혁(1991). “북한의 언어정책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2」, 서울: 녹진.
- 李商赫(1991). “-的派生語의 形態·統辭論的 考察.” 고려대 석사논문.
- 李益燮(1968). “漢字語 造語法의 類型.” 「李崇寧 博士 頌壽紀念論叢」.
- 李益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서울:學研社 이정민·배영남(1987). 「언어학사전」(개정증보판) 서울:박영사.
- 任洪彬(1982). “記述보다는 設明을 重視하는 形態論의 機能定立을 위하여.” 「韓國學報」 26.
- 임홍빈(1985). “국어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 任栢宰(1984)譯. 「言語學史」, 서울:經文社.
- 장하일(1956). “임자자리말끝(Nominative Case Ending) ‘-이.’ 「한글」 120.
- 정철주(1985). “파생접미사 ‘-的’의 단어형성.” 「소당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 논총」.
- 曹永任(1990). “漢語助詞「的」研究.” 「전남대 석사논문」.
- 한학성(1990). 「G B 통사론」, 서울:한신문화사.
- 洪淳性(1982). “-的’에대하여.” 「肯浦 趙奎尚教授 華甲紀念 國語學 論叢」
- 洪宗善(1985). “名詞의 機能.” 「于雲 朴炳采 博士 還曆紀念論叢」.
- 遠藤織枝(1984). “接尾語「的」의 意味と用法” 「日本語教育」 53호.
- Bloomfield(1933).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d Ltd.
- Chomsky(1957). *Syntatic Structure*, The Hague: Mouton.
- Chomsky(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1981). *Le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trecht: Foris Pu-blications.
- Gleason(1955).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 Hong Chai-Song(1974). *Etude sur le Suffix -적(的) en Coréen Contempo-rain*, Revue de Corée, Vol. VI, n.1.
- Lyons(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UP.
- Riemsdijk and Williams(1986).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ammar*, Cambridge: MIT Press.